

쌓이는 피로... '구급 상황'에 놓인 구급대원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인력의 27%인 구급대원이 출동 건수 76% 수행 의정갈등에 출동 시간 늘고 업무 가중...월산·월곡센터 팀당 출동최다 시, 특별휴가 등 포상에 호텔 무료 숙박권·힐링 데이 운영 등 사기 진작

8개월째 의정갈등이 이어지면서 광주 소방 구급대원들의 출동 평균 시간이 늘고 병원 진료 전 상담건수가 급증하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2-9월 기준 광주 소방안전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처리한 상담 건수는 지난해 2만 1579건에서 올해 2만 8590건으로 3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병원 진료 전 질병상담 건수는 5621건으로, 전년 동기(2223건) 대비 152.9% 뛰었다. 같은 기간 동안 응급처치 건수도 지난해 8899건에서 1만 2294건으로 38.2% 늘었고, 병원·약국 안내 건수도 1만 292건에서 1만 534건으로 2.4% 증가했다.

대원들의 현장활동 1회 당 소요되는 평균 시간 또한 지난해 27.3분에서 올해 28.3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구급대원들의 업무가 복잡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만 수용하고 있으며, 그 외 환자들은 2차 이하 의료기관으로 수용하는 등 선별적인 이송 방식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전공의 부재 등의 사유로 환자 수용불가 통보를 받는 사례도 급증하면서 병원 선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구급대원들의 업무피로도도 늘었다는 것이다.

의사 집단행동 여파로 시민들이 질병 증상과 대처 방법 등을 상담하기 위해 병원이 아닌 119 구급대에 연락하는 경향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가도 진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소방 쪽으로 몰린 것이다.

구급대원에 대한 업무 편중 문제도 심각하다.

올해 2-9월 기준 광주소방안전본부 소속 현장대원 1114명 중 구급대원 297명(26.7%)이 전체 출동 건수의 76.2%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현장대원 출동 건수는 6만 4789건, 구급 출동 건수는 4만 971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화재 출동 42건(0.7%), 구조 5678건(8.7%), 생활안전 9355건(14.4%) 등이었다.

인력 배치 불균형으로 일부 구급대에서 근무하는 현장대원에게 출동 업무가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9월 사이 광주에서 가장 많은 출동을 한

119 안전센터는 우산센터(3275건), 문흥센터(3260건), 화정센터(3240건) 등이었다. 이들은 한 팀당 평균 540-546건에 달하는 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산센터의 경우 올해 2-9월 총 2295건의 출동을 했지만, 한 팀당 평균 출동 건수는 680건에 달했다. 월곡센터(총 출동 1852건, 한 팀당 617건), 신가센터(총 1847건, 한 팀당 616건) 등에서도 전체 출동 건수 대비 팀당 출동 건수가 과중한 경향을 보였다. 한 팀당 평균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월산센터의 경우 출동 건수가 가장 적었던 대촌센터(한 팀당 136건), 빛그린센터(113건)와는 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 포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포상은 오는 11-12월 격무부서에 특별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월 21일 이후 구급대원별 출동건수 650건에 도달하는 대원에게 특별 휴가(당번 1일)를 제공하는 안이다. 추후 해외 응급의료 체계연수자 선발 시 구급 출동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하는 안도 계획 중이다.

이달 초부터 시행된 호텔 무료 숙박권 제공,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데이 운영, 유공 구급대원 소방청장 표창 등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광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마음은 병원 관계자와 소방 현장대원을 모두 같다"며 "현장 대원들이 업무뿐 아니라 심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한 만큼, 충분한 휴식과 보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빛속 광주시 이태원 참가 2주기 추모 10-29 이태원 참가 유가족과 광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태원 참가 2주기를 이틀 앞둔 27일 오후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에서 참가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있다. /니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전남대병원 진료전담의사 이번엔 채용할까

지난 8월 불발에 31명 채용 재공고

전남대병원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시 일반의 채용에 나섰다.

전남대병원은 최근 다음달 28일까지 '진료전담의사' 31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게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진료전담의사는 환자진료를 도맡는 의사로 수련 근무 경험자가 채용 대상이다. 수련 근무 경험자는 전공의로 근무하다 의정갈등 사태 이후 사직한 의사도 포함된다.

모집인원은 분원 마취통증의학과 4명, 응급의학과 2명, 내과 9명, 산부인과 2명, 소아청소년과 1명, 신경외과 2명, 신경과 1명 등 총 21명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 2명, 응급의학과 2명, 내과 5명 등 총 9명으로 필수요로 분야다.

전남대병원이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교수들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료전담의 모집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에도 24명의 의대교수가 사직해 인력 공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진료전담의사 채용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8월 진료전담의를 채용하는 공고를 올렸으나 지원자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 평행선을 긋고 있어 상급병원으로 복귀하는 의료진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전남대병원의 한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한치도 물러서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면서 "이 때문에 일반의사 모집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찰, 주택사업 뇌물 의혹 광산구 압수수색

대구 SM우방 건설본사도

광주지검이 임대아파트 민간분양 전환 과정에서 건설사와 담당 공무원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25일 오전 광산구 주택과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대구에 있는 SM우방 건설본사와 SM그룹이 운영하는 신촌역사 사무실도 같은 시각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2021년-2022년 분양 전환을 한 광산구 아파트 두 곳의 담당 공무원이 SM우방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검찰은 담당 공무원이 분양전환 금액 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압수수색에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SM그룹이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있다고 보고 대구지방국세청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광산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수사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행정 전반을 더 철저히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어머니와 다투는 모습에 화나" 70대 이웃 숨지게 한 10대 무안경찰, 입건 조사

어머니와 다투는 70대 이웃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무안경찰은 A(15)군을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40분께 무안군 자신의 집 앞에서 70대 남성 B씨에게 두 차례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과정에서 뒤로 넘어진 B씨는 후두부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7일 결국 숨졌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B씨가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모친은 B씨와 종종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장해원 기자 hey1@kwangju.co.kr

관급자재 공급업체 뇌물수수 혐의 무안군 간부 공무원 영장 재차 기각

관급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안군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전담 남해광 부장판사는 무안군 소속 4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정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같이 실질심사를 받은 김산 무안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B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정은 A씨가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성사를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돼 보완 수사를 통해 재청구됐지만, 다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포함해 무안군청 5급 간부 등 다수 공무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뇌물을 준 관급자재 공급 사업자 등 9명도 함께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김산 무안군수도 뇌물 수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측이 마련한 현금 8000만원이 김 군수 측 캠프 관계자에게 흘러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